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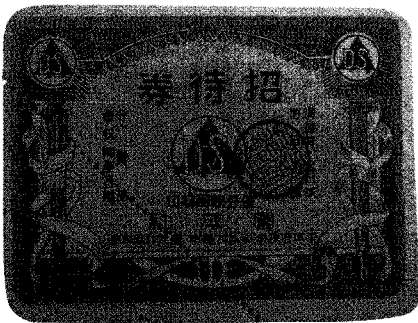
다시보는 한국 영화 이야기

어디 돈 많은 과부 없나?

고물을 수집하다보니 좁은 부산의 영화판, 연극판 등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그래서 영화촬영 현장까지 가서 그들과 어울리곤 했는데 영화판의 안을 들여다보면 진짜 배고픈 곳이다.

감독은 허울만 그럴듯하지 거의 빈털터리에 가깝고 열정만 가득한 스텝들은 완전한 노가다 집단이다. 10년전 '극영화' 한편 만든 것으로 부산지역에서 몇 안되는 '영화감독'이라는 호칭을 받는 이가 있는데 그의 18번이 '돈 많은 과부 하나 물어야 하는데' 이다.

최근 한국영화 관객 '일 천만 시대'를 맞이했다. 1903년 '활동사진'이라 불리우는 영화가 들어온 후 1919년 10월27일 김도산에 의해 최초의 국산영화인 '의리적 구투'가 서울 단성사에서 개봉하였다. 대중적인 여가문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 땅에 영화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TV가 나오기 전 까지 영화는 한국인에게서 제일 사랑받는 대중 오락거리였다. 그러나 폐쇄적인 남성사회에서 여성의 완전한 여가문화는 전무했고 해방이 되고 미국의 허리우드 영화가 몰밀듯이 들어와서 여성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1930년대 '단성사' 초대권



'울어라 열풍아' 주제가 판자켓



50년대 '하리우드' 영화 리프렛.



50년대 영화촬영 장면.

60년대를 들어서면서 여성관객을 잡아야만 흥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자 '최류탄 영화'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는 영화를 좋아한다)가 유행하였고 이로 인해 국산영화의 황금기를 맞게 되었다.

이 시기에 아동기였던 필자는 막내이모 덕분에 최류탄 영화를 많이 보았다. 당시 이모는 마산전신전화국 교환장이었는데 전화목소리가 아름다워 못 남성에게서 데이트 신청이 많이 들어왔고 데이트 장소인 극장에 갈 때면 꼭 나를 대동하고 다녔다.

지금도 기억하는 영화는 '올어라 열풍아' '맨발의 청춘' '두만강아 잘 있거라' 등이다.

그런데 하나같이 주인공이 죽는다는 것이다. 지금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대부분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다.

그래서 TV같은 경우 주 시청세대가 젊어지면서 젊은이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 젊은 나이에도 죽는 암, 백혈병, 교통사고 등이 드라마에 주 메뉴로 사용되고 있다.

며칠 전 '돈 많은 과부'의 장본인인 모감독을 만나 시나리오 한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보도방 나가는 이혼녀의 이야기'였다.

와! 드디어 물었구나.